

강성열 교수의 성경을 여는 열쇠, 창세기

7강 아브라함의 소명과 순종

1. 약속의 땅으로 간 아브라함 (12-14장)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창세기 원역사(原歷史; 1-11장)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처음 인간의 범죄와 타락, 가인과 아벨 이야기, 형제 살인,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각종 족보들과 민족 목록을 통해 연속성을 가진 한 이야기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11장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원역사는 이야기의 초점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에게 맞춘다. 11장 27절에서 32절에 이어지는 데라의 가계(家系)가 그 점을 잘 보여 준다.

바로 이 데라의 가계를 통하여 원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의 이야기, 곧 족장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 이 족장사(族長史)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의 족장들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는다. 모든 인간에 관한 이야기인 원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인 족장사 사이에는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원역사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를 아는 데에 있다.

창세기 원역사가 전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해 왔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엄중(嚴重)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고 동생을 죽인 가인이 그러했다. 홍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고 바벨탑을 쌓던 시날 평지의 사람들이 그러했다. 하나님께서 꾸준히 그들에게 새로운 은총을 부어주시기는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완전한 파멸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역사가 이처럼 허망하게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기로 작정하셨다. 이 새로운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명령과 복에 잘 나타나 있다(12:1-3, 가능한 한 피피티 자료에 본문 인용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문자 그대로 세상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구원(복)을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택된 인물이었다.

당시에 75세였던(12:4)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하였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그는 세겜 지역과 벰엘 동쪽을 지나 남부 지역인 네게브에 도착하였다(12:5-9). 그러다가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이주하였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반하는 잘못을 범한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자손 약속이 이루어질 유일한 수단인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겨버린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벌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원상복귀시키므로써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12:10-20).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은 네게브를 거쳐 벰엘 동쪽 지역에 장막을 쳤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더불어 살 수가 없어서 롯에게 선택권을 일임함으로써 롯과 헤어지게 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자신의 거주지로 선택한다. 반면에 조카 롯에게 모든 것

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재차 땅과 자손의 약속을 받은 후에 헤브론으로 옮겨간다(13장). 거기에서 그는 집안 식구들 중 용사들 318명을 거느리고서 엘람 족속의 동맹군에게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출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 소득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바친다(14장).

2.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15-17장)

아브라함은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신의 안전한 거주지인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으로 옮겨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옮겨간 약속의 땅 가나안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갖추고 있는 풍요의 땅이 아니었다. 그는 아직 자기 소유라 할 만한 땅을 전혀 갖지 못했을 뿐더러, 네게브 지방(남방)에 있을 때에는 기근을 만나기도 했다. 이 기근으로 인해 잠시 애굽으로 이주해야만 했고 거기서 뜻하지 않게 자기 아내 사 را를 애굽 왕 바로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는 불충분한 생존 여건으로 인해 조카 롯과 안 좋은 관계에 놓일 때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엘람 족속 진영의 동맹군에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일도 겪어야 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간 가나안 땅은 이처럼 기근과 결핍과 싸움의 땅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보호하여 주셨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권세 앞에서 그를 지켜 주셨으며,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질 유일한 수단인 그의 아내 사 را를 되돌려 주기도 하셨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을 때에조차, 하나님은 그에게 자손과 땅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보증해 주셨다. 또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포로로 잡힌 조카 롯을 구출할 수 있게 하셨고,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도 받게 하셨다.

그렇지만 이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해 놓고 있었다. 이에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몸에서 낳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아울러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언약 체결의 양식을 통해 주어졌는데, 그것은 곧 희생 제물의 몸을 둘로 찢개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사이를 지나가시는 방식을 취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다짐하는 성격의 것이었다(15장).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이른 지 10년이 다 되어도 자식이 없자 마침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갖기에 이르렀다(16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과 아울러 이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다른 아들, 곧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에게서 낳을 아들 이삭이 그의 정식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늙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이었다(17장).

3.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18-20장)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기근을 피하여 아브라함 일행과 함께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동안에 아브라함이나 롯의 재산이 불어난 까닭에 더 이상 두 사람이 같이 거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거주지 선정권을 양보하는 신앙적인 결단을 내렸고, 롯은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땅은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곳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땅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사람들까지를 다 멸하려고 하는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義人) 열 사람조차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18장). 결국 롯과 그의 아내 및 그의 두 딸만 특별히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렵사리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롯의 가정은 온전하게 남아나지 못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하면 롯은 자기의 두 딸에게 속임 당하여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통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인 모압과 벤암미를 낳게 되었다(19장).

조카 롯이 이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동안에 아브라함은 남방의 그랄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금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고, 이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유일한 통로인 자기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넘겨주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꿈 속에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되돌려줄 것을 경고하셨다. 이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엄하게 책망하고서 그의 아내 사라를 그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무효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20장).

4. 이삭의 출생과 사라의 죽음 (21-23장)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 두 번에 걸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임으로써 애굽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을 곤경에 빠뜨린 적이 있었다(12:10-20; 20장). 그런데 이 두 사건 중 첫 번째의 것은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자손 약속이 주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었고, 두 번째의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에 발생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분명해지는 것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처음과 마지막에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아브라함의 실수는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렸다. 그의 본부인인 사라가 없을 경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내 사라를 다시 그에게 되돌려 주셨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1년 후에 그들 부부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비록 두 사람이 이 약속을 듣고서 속으로 웃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나이 90의 사라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은 것이다. 이들 부부는 후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가 젖을 떼던 날에 큰 잔치를 열어 이삭의 앞날을 축복하

였다(21:1-7). 이와 아울러 그는 브엘세바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협약을 맺고서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 것을 약속하였다(21:22-34).

그러나 이들 부부의 현실이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다. 창세기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닥친 고통은 그가 낳은 두 아들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첫 번째 고통은 이삭을 놀려대던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명대로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그의 집에서 내어 보내야만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는 했지만 말이다(21:8-21). 또 다른 고통은 이삭이 어엿한 소년으로 자라난 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느닷없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 것이다. 이로 인해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뜻밖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결말지어졌다(22장).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의 시신을 장사지내기 위해 헷 사람 에브론에게 속한 막벨라 굴과 굴 주변에 있는 밭을 은 400세겔에 사들였다. 이로써 헤브론의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밭은 처음으로 아브라함 소유의 땅이 되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전체가 아브라함 소유로 되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세월이 필요했다(23장).

